정비석 장편연애·세태소설의 세계인식과 그 시대적 의미

이영미*

1. 머리말
2. 정비석 장편연애·세태소설 변화의 양상
  2-1. 제1기, 인종·금욕의 윤리적 인물의 우위
  2-2. 제2기, 윤리적 당위를 뚫고 상승하는 욕망
  2-3. 제3기, 성적 욕망의 전면화
  2-4. 제4기, 자본주의적 욕망과 사회문제의 결합
  2-5. 제5기, 반복과 퇴행
3. 정비석의 세계인식과 태도, 그리고 1940, 50년대
  3-1. 정비석 장편연애·세태소설의 매체와 수용자
  3-2. 1940, 50년대의 변화와 그 방향
  3-3. 돈, 권력, 성, 욕망의 질주와 거래, 그리고 통념적 윤리
  3-4. 정비석 연애·세태소설의 근대성, 그리고 민주주의
4. 맺음말

국문요약

이 글은 소설가 정비석의 작품세계 전모와 그 시대적 의미를, 장편연애·세태소설들을 중심으로 하여 살펴보고자 하는 글이다. 장편연애·세태소설은 정비석이 30, 40대 시절인 1940, 50년대에 가장 힘을 기울여 작업한 것으로, 그의 작품세계의 핵심을 이룬다. 그 양도 매우 많아, 단행본으로 발표된 작품만 28편이며, 대부분 일간지에 연재된 작품들이다. 즉 정비석의 장편연애·세태소설은 1950년대에 일간지 독자들의 열렬한 호응으로 최고의 인기를 누린 작품들로, 정비석의 작가세계를 보여주는 동시에 1950년대 도시 중산층 중장년 남성 대중들의 관심사와 세계인식, 태도 등을 잘 보여주는 작품들이기도 하다.

www.kci.go.kr

* 성공회대학교 문화대학원 겸임교수.

정비석의 장편연애・세태소설은 5시기로 구분할 수 있는데, 뒤로 갈수록 성욕과 물욕을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이를 얻어내려 도발적으로 행동하는 인물들의 비중이 점차 높아지는 변화를 보인다. 작품들은, 인간의 윤리성과 무관하게 누구에게나 돈, 권력, 성에 대한 욕망이 가장 중요한 본성임을 인정하며, 이 세상이 욕망을 향해 질주하는 인간들이 힘으로 싸우고 거래하는 곳임을 적나라하고 섬세하게 보여준다. 작품들은, 성찰과 사유를 제거하고 욕망에 몸을 실은 채 실용적이고 속도감 있게 움직이는 세상이 도래했다는 점을 명확하게 보여준다. 이러한 새로운 인간관과 세계인식은, 이 시대의 어떤 작품도 성취하지 못한 근대 자본주의 사회와 인간에 대한 정확한 인식이다.

그러나 이들 작품은, 근대성과 민주주의의 기본 전제인 자유로운 개인에 대한 인정에도 불구하고, 평등과 인권에 대한 완벽한 무시의 태도를 지닌다. 그럼으로써 그의 작품들은 1960년 시민혁명 이후 새로운 세대에 의한 민주주의 의식이 고양되는 시기에는 참신함을 상실했고 퇴락하는 모습을 보여준다.

(주제어 : 정비석, 1950년대, 욕망, 신문 독자, 민주주의, 자본주의적 근대 사회)

1. 머리말

이 글은 소설가 정비석의 작품세계 전모와 그 시대적 의미를, 장편연애・세태소설들을 중심으로 하여 살펴보고자 하는 글이다. 1911년 평북 의주 출생인 정비석은 1935년에『동아일보』에 시를 발표한 후, 1936년에『동아일보』신춘문예에「졸곡제」가, 1937년에『조선일보』신춘문예에「성황당」이 당선됨으로써 소설가로 활동을 시작했다. 그의 장편소설은, 당대를 배경으로 한 연애와 세태를 주 소재로 한 작품과, 연산군이나 황진이 등 이미 서사문학 작품으로 발표된 바 있는 소재를 바탕으로 한 역사소설로 범박하게 나누어 볼 수 있는데, 이 글은 이 중 장편연애・세태소설을 대상으로 한다.[1)]

www.kci.go.kr

1) 이 글에서 쓰고 있는 연애・세태소설이라는 명칭은 다분히 편의적인 이름이다. 정비

그는 다작의 작가이다. 해방 후 1960년을 전후한 시기까지 매해 쉬지 않고 작품을 발표했고, 한 해에 장편연애・세태소설만 무려 6편을 발표하기도 했다. 1939년 「금단의 유역」으로 시작한 그의 장편연애・세태소설은 1972년 여수 에 이르기까지 37편이 확인되었는데(연작소설 제외) 그 이상일 가능성도 있다. 이 중 단행본으로 출간된 작품은 28편인데, 이 글에서는 28편 모두를 연구대상으로 삼는다.

정비석 소설의 이 어마어마한 양은, 같은 시기 활동한 비슷한 연배의 대중소설 작가들, 예컨대 김내성, 박계주, 장덕조 등과 비교해 보아도 월등하다. 대부분 신문과 잡지의 연재로 발표되고 이후 상당수가 영화로 제작되었음을 생각하면 당대 그의 높은 인기와 대중적 영향력을 쉽게 짐작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비석의 장편연애・세태소설에 대한 연구는 아직 초기 단계라고 할 수 있다. 정비석의 장편연애・세태소설에 대한 연구가 2000년대 이후 이루어졌거니와 그 대부분은 사회적으로 크게 주목을 받은 『자유부인』에 집중되어 있다.[2] 그 외, 초기작인 『청춘의 윤리』를 다룬 몇

석의 장편소설 중, 역사소설을 제외한 작품, 당대의 이야기를 다룬 작품들을 통칭하고자 이 명칭을 쓴 것이다. 이들 작품이 연애소설의 성격과 세태소설의 성격을 모두 지니고 있고 작품마다 편차가 있어, 연애소설 혹은 세태소설 어느 하나로만 명명하기 힘들다는 판단에서, 이 글에서는 다소 번거롭지만 연애・세태소설이라고 부르고자 한다.

2) 『자유부인』을 다룬 기존의 연구를 간추려보면 다음과 같다.
강진호, 「전후 세태와 소설의 존재방식 - 정비석의 『자유부인』을 중심으로」, 『현대문학이론연구』 13호, 현대문학이론학회, 2000.
김지연, 「정비석 소설 『자유부인』의 인물 연구」, 동아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1.
한혜원, 「정비석 소설의 창작방법 연구 ,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2.
김일영, 「정비석의 신문소설 『자유부인』에 나타난 풍속의 양상」, 『인문과학연구』 4호, 대구가톨릭대 인문과학연구소, 2003.
최미진, 「부인명 대중소설에 나타난 여성의식 연구 -정비석의 『자유부인』과 전병순의 「현부인 을 중심으로', 『현대소설연구』 21호, 2004, 최미진, 『한국대중소설의 틈새와 심층』 재수록, 푸른사상, 2006, 70-89쪽
이시은, 「전후 국가재건 윤리와 자유의 문제 - 정비석의 『자유부인』을 중심으로 , 『현대문학의 연구』 26호, 한국문학연구학회, 2005.
정은영, 「1950년대 신문소설의 서사방식 연구-정비석의 『자유부인』을 중심으로』, 중앙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6.
강찬모, 「정비석 소설 연구-부인명 소설에 나타난 여주인공의 성의 자각 과정 연구 , 『한국문학 이론과 비평』 35호, 한국문학이론과비평학회, 2007.

www.kci.go.kr

편의 연구와[3], 일제 말의 인식 틀이 해방 이후『고원』등의 작품에까지 어떻게 지속되고 변주되는가에 초점을 맞춘 이혜령과 정종현의 논문, 그 외 전쟁기의 작품『여성전선』을 분석한 연구,『유혹의 강』을 대상으로 1950년대 문화정치학적 의미를 탐구한 연구 등이 있다[4]. 정비석의 장편소설을 가장 포괄적으로 다룬 연구는『청춘의 윤리』,『애정무한』,『민주어족』,『에덴은 아직 멀다』를 분석한 안미영의 연구로[5], 정비석 대중소설이 보여주는 윤리성의 본질과 한계를 적확하게 분석했다. 하지만 이 역시 분석 대상 작품에서, 해방 직후, 전쟁 발발 직후, 4・19 직후,『자유부인』필화사건 직후에 집필되어 상대적으로 정치적 인식의 비중이 큰 작품만 대상으로 함으로써, 그 외의 작품이 지닌 작품세계까지 포괄하지는 못하고 있다. 즉 아직까지 정비석 장편연애・세태소설연구는, 그 전체를 조망하고자 하기보다는 정치적 함의가 강한 몇몇 작품에 주목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이 글은 이러한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하되, 정비석 장편연애・세태소설 전체를 한꺼번에 조망함으로써 그의 작품세계의 전모를 개괄적으로나마 밝히고자 하는 목표를 지닌다는 점에서 차별성을 지닌다.

이 글에서 정비석 작품세계의 전모를 장편연애・세태소설 전 작품으로

강상희,「계몽과 해방의 미시사-정비석의『자유부인』,‘탄생 100주년 문학인 기념 문학제’자료집『이산과 귀향-한국문학의 새 영토』, 교보, 대산문화재단, 한국작가회의, 2011.4.7, 107-118쪽

3) 김지영,「정비석 초기 연애소설 연구 , 부산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0.
이원경,「1930년대 중・후반 소설의 가족과 섹슈얼리티 형상화에 관한 연구 , 국민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8.

4) 이혜령,「‘해방기’식민기억의 한 양상과 젠더 ,『여성문학연구』19호, 한국여성문학회, 2008.6.
정종현,「자유와 민주, 식민지 윤리감각의 재맥락화-정비석 소설을 통해 본 미국 헤게모니하 한국 문화재편의 젠더정치학 , 권보드래 외,『아프레걸 사상계를 읽다』, 동국대출판부, 2009.
최미진,「한국전쟁기 정비석의『여성전선』연구」,『현대문학이론학회』32호, 현대문학이론학회, 2007.
김은하,「전후 국가근대화와 위험한 미망인의 문화정치학 ,『한국문학이론과 비평』49호, 한국문학이론과비평학회, 2010.

5) 안미영,「정비석 대중소설에 나타난 ‘윤리’고찰-『청춘의 윤리』,『애정무한』,『민주어족』,『에덴은 아직 멀다』를 중심으로 ,『개신어문연구』21호, 개신어문학회, 2004.

www.kci.go.kr

살펴보고자 하는 것은, 이에 집중한 시기가 정비석의 대중적 인기가 가장 높았던 전성기였기 때문이다. 이 시기 그는 엄청난 대중적 호응을 받으며 소설을 썼고, 『자유부인』 필화사건 등에서 확인되듯 당대 사회와의 상호교섭이 매우 활발하고 강렬했다. 따라서 한두 작품의 특징에 주목하는 것에 머물지 않고 그 시대를 휩쓴 작품 모두를 총괄적으로 분석함으로써, 당시 그를 인기작가로 만들어준 수용자 대중의 세계인식과 태도, 세계전유방식을 살펴볼 수 있을 것이라 판단된다. 이중 단행본 출간이 이루어진 작품만 대상으로 하고자 하는 것은, 연구의 편의를 위한 선택이기도 했지만 단행본으로 출간된 작품이 대중적 인기가 확인된 작품이라는 판단도 한몫했다. 정비석이 염상섭처럼 문학계에서 추앙받는 작가가 아니었으니 매체 연재는 오로지 독자 대중의 인기 덕분일 터이며, 게다가 연재본이 단행본으로까지 이어졌다면 그것은 안정된 이윤을 예상한 출판이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정비석의 장편연애・세태소설은 그의 작품세계의 핵심을 이루며, 그 중심은 1950년대이다. 그는 1980년대 후반까지 꾸준히 장편을 발표하지만 장편연애・세태소설은 거의 1940, 50년대에 집중되어 있다. 첫 작품은 1939년 중편에 가까운 「금단의 유역」으로 출발하여 해방 후 1950년대에 엄청난 양을 발표한 이후, 1961년 이후에는 발표가 뜸해져 10년 동안 단 세 편을 발표하고는 장편연애・세태소설 집필을 끝낸다. 그에 비해 역사소설은 1955년 『연산군』을 필두로 1970년대 이후에 본격적으로 집필했다. 역사소설이 독자들에게 익숙한 소재와 서사를 바탕으로 한 다소 수월한 기획인 것에 비해, 이 시기의 연애・세태소설은 30, 40대의 패기만만하던 시절에 작가의 모든 역량을 쏟아 부은 온전한 창작이라는 점에서 그의 작품세계의 핵심이라 할 수 있다. 장편연애・세태소설 중 절반 이상은 1950년대에 발표되었고 발표매체는 영향력 있는 일간지가 주를 이루었다. 연재 후 단행본 출간은 당대 유명 출판사인 정음사, 삼중당 등에서 이루어졌고 이 시기의 작품의 상당수가 당대에 영화화되었다. 이에 비해 1961년 이후에는 『욕망해협』만, 그나마 발표 10년 후에 주로 대중소설만 집중적으로 출간하는 노벨문화사에서 출간되었다. 그의 대중적 인기나 사회적 관심은 1950년대에 집중되어 있는 것이다.

바로 이러한 점에서, 그의 장편연애・세태소설을 분석한다는 것은 1950

www.kci.go.kr

년대의 세상과 인간들에 대해 살펴보는 것에 다름 아니다. 주지하다시피 대중예술 작품은 작가의 것인 동시에 수용자 대중의 것이다. 본격예술에서 작품을 작가의 작품세계가 외화된 것으로 이해되는 것에 비해, 대중예술의 작품, 특히 인기를 얻은 작품이나 특정 시기의 경향은 수용자 대중의 취향과 세계전유방식 등과 조응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작가가 수용자 대중의 취향과 세계전유방식을 작품에 반영할 능력(의도를 포함하여)이 크게 떨어지면 작품의 대중적 인기는 떨어지고, 그 작가는 대중작가로서의 사회적 영향력을 상실하게 된다. 물론 작가주의적 작가는, 대중의 요구를 반영하면서도 한편에 작가 자신의 할 말을 의도적으로 배치하여 대중의 평균적 요구와 묘한 긴장감을 조성하며, 그것이야말로 작가주의적 매력일 수 있다. 그런데 정비석은 작가주의적인 작가가 아니며, 1950년대 대중소설의 새로운 주류 경향의 중심에 서서 이를 이끌고 나간 작가이다. 이 작품들 안에는 정비석만의 특성이 적잖이 담겨 있는 한편, 세상의 흐름과 그에 따라 변화하는 수용자 대중의 요구 또한 민감하게 포착되어 있다. 수용자의 욕망・세계전유방식과 작가의 그것이 늘 완전히 일치하는 것은 아니나, 이렇게 긴 기간 동안 주류 경향을 이끌며 인기를 끈 작가의 경우는 수용자의 욕망・세계전유방식과 작가의 그것이 우연히 일시적으로 일치한 것이 아닌, 작가의 성향과 능력이 수용자의 욕망・세계전유방식과 성공적으로 조응한 것이라 보아도 좋을 것이다. 물론 작가와 수용자의 욕망・세계전유방식이 정확하게 일치하는 것은 아니므로 작품에 나타난 특성에서 작가의 그것과 수용자의 그것을 분별해내는 것은 중요한 일인바, 이를 염두에 둔다면 정비석이 최고의 인기몰이를 하던 시절의 장편연애・세태소설들을 통해 수용자의 욕망, 관심사, 세상에 대한 태도를 읽어내고 더 나아가 당대 세상을 읽어내는 일은 가능하리라 보인다. 이 글이 목표하는 바는 이것이다.

www.kci.go.kr

2. 정비석 장편연애·세태소설 변화의 양상

2-1. 제1기, 인종·금욕의 윤리적 인물의 우위

단행본으로 출간된 그의 장편연애·세태소설 28편은 크게 다섯 시기로 구분하여 살펴볼 수 있다. 각 시기에 따라, 연애소설에서 가장 중요한 주요 인물과 갈등 양상, 주제를 좌우하는 중요 소재 등의 변화가 이루어짐을 알 수 있다. 이중 제1기는 일제 말 시기로, 단행본으로 발간된 작품은 다음 한 작품이다.[6)]

1942,『청춘의 윤리』,『매일신보』연재. (매일신보사, 1944)

『청춘의 윤리』 이전에 중편 규모의「금단의 유역」(1939)과 장편「화풍」(1939)이 있으나 단행본으로 출간되지 않았다. 이 시기는 정비석의 연애·세태소설의 기본 틀이 형성되는 과정으로, 넓은 의미의 습작기라 보아도 좋을 것이다. 작품 수가 적어 본격적인 다작의 글쓰기가 이루어지지 않은 시기이기도 하며, 단행본 발간이 되지 않은 연재소설까지 3편의 소설까지 함께 고려하건대 이후 정비석 작품세계의 중요 특질들이 아직 충분히 발현되지 않은 시기라 할 수 있다.

그의 장편연애·세태소설 중 초중기의 작품들은, 내면적 고민이 깊어 내성적이거나 소극적인 여자와 남자, 그리고 돈과 애욕을 좀 더 적극적으로 드러내어 관철시키고자 하는 외향적이고 적극적인 여자와 남자의 인물들이 여러 개의 삼각관계로 얽히는 이야기들이 주를 이룬다. 이러한 인물형의 설정이란, 식민지시대부터 지금까지 우리나라의 연애서사에서 꾸준히 나타나는 인물형들이므로 그것만으로 독특한 것은 아니다. 주목할 만한 것은, 기본 유형의 배치와 운용, 가치부여이다. 정비석의 이 시기 작품에서는, 내성적이고 소극적이며 정숙하여 때때로 인종과 희생의 태도를 지닌 진실하고 성실한 여자와, 내면적 고민이 깊어 소극적이나 진실하고 성실한 남자가 제

6) 괄호 안의 내용은 단행본 출판과 관련된 사항이다.

www.kci.go.kr

1주인공들로 배치되고(혹은 긍정적 가치부여의 대상으로 설정되고), 외향적이고 적극적인 남녀가 제2주인공들로 배치되어 제1주인공들의 연애 라이벌로 설정된다. 구체적으로 살펴본다면, 인종과 희생의 태도를 지니고 산원과 탁아소를 겸한 기관인 성애원의 총무로 봉사하듯 일하는 장현주와 진실성 있고 사려 깊으며 윤리적이나 바로 그 성격 때문에 제1여주인공과의 사랑이 순조롭게 이루어지지 않는 의사 김성호가 제1남녀주인공으로 설정되어 있고, 이에 반해 마음에 드는 남자에게 적극적으로 사랑을 호소하는 최영주와 돈 많고 호탕하며 적극적이며 과감한 실행력을 지닌 최영득이 제2남녀주인공으로 설정되어 있다. 그리고 내성적이고 소극적이며 진실성을 지니면서 자신을 희생하고 고통을 참고 견디는 인물을 작품의 중심에 위치시킨다.

인종과 희생의 태도를 지닌 인물을 작품의 중심에 세우는 특성은, 이 시기의 지배이데올로기나 일반적인 대중적 취향과 조응한다. 동양적 부덕(婦德), 인종과 희생의 태도는 식민지후반기에 일종의 지배이데올로기로 형성된 동양론의 한 양상인바, 이러한 미덕을 지닌 인물은 비단 정비석뿐 아니라 많은 작가의 작품에서 두루 발견된다. 『청춘의 윤리』는 이 특성이 노골적인 친일 주제와 결합되어[7] 그것의 정치성이 매우 명료하게 나타나는 작품이라 할 수 있다. 인종과 희생의 인물을 우위에 두는 이 시기의 특성은, 해방 이후 작품에도 어느 정도 지속되며 변주되고 있으며, 이 역시 정비석뿐 아니라 다른 작가에서도 흔히 발견된다.

그런데 여기에서 주목할 만한 점은, 다른 작가의 소설에 비해 정비석 소설에서, 욕망에 적극적인 여성 인물의 비중과 인물 형상화가 월등하다 점이다. 「금단의 유역」, 화풍」에서는, 적극적이고 외향적인 여성이 차갑게 욕망을 절제하거나 희생적인 여성에 압도당해 있으나, 『청춘의 윤리』에 이르러서는 적극적인 여성 인물의 비중이 매우 커지고 부정적 역할도 크게 줄어든다. 이는 남성 인물형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나며, 이들 제2의 남녀주인공들의 적극성과 외향성은 시대가 요구하는 청춘의 활기로 평가되어 또 다른 긍

7) 『청춘의 윤리』에서 가장 잘 드러난 동양적 부덕, 인종, 희생의 태도의 식민지후반기 지배이데올로기로서의 특성에 대해서는, 정종현, 「자유와 민주, 식민지 윤리감각의 재맥락화-정비석 소설을 통해 본 미국 헤게모니하 한국 문화재편의 젠더정치학 , 권보드래 외, 『아프레걸 사상계를 읽다』, 동국대출판부, 127-137쪽 참조.

정적 요소로 의미 부여가 이루어진다. 이렇게 부와 애욕에 적극적인 인물에 대한 높은 비중은, 같은 시대의 다른 작가들에게서는 찾기 힘든 정비석만의 특징으로 보인다. 이후 1950년대의 새로운 인물형을 만들어나가는 데에 정비석이 특히 유리한 특성을 지니고 있었던 셈이다.

그러나 아직까지 이러한 특성은 전면화되지 않고 있다. 인종과 희생, 내면적 진실성 등 이 시대의 지배이데올로기나 독자 대중들의 일반적인 인식・태도에 압도당하여, 돈과 성에 대한 욕망을 지닌 인물은 여전히 후면에 머물러 있는 상태이다.

2-2. 제2기, 윤리적 당위를 뚫고 상승하는 욕망

이 시기는, 일제 말기에 성립된 정비석의 장편연애・세태소설의 기본 틀을 바탕으로, 돈과 성의 욕망을 중심으로 움직이는 인물들의 격한 대립이 전면화되는 작품들이 본격화되는 시기이다. 또한 잡지와 신문 연재로 그의 다작의 면모가 나타나기 시작하는 시기이기도 하다. 해당 작품은 다음과 같다.

1946,『고원』,『백민』 연재. (백민문화사, 1946)
1946,『도회의 정열』,『신인』 연재. (평범사, 1947)
1946,『애련기』,『실업조선』 연재. (보문출판사, 1949)
1947,『장미의 계절』,『중앙신문』 연재. (대조사, 1949)
1949,『청춘산맥』,『경향신문』 연재. 전쟁으로 중단. (문성당 1952)

정치적으로 이 시기는 미군정과 정부수립에 이르는 극심한 정치적 격변기이지만, 이러한 정치적 배경은 작품에 거의 나타나지 않는다. 오히려 이 정치적 변화는, 자본주의 국가 미국이 지배적 힘을 발휘하는 세상이 도래함으로써 돈과 성에 대한 욕망이 크게 상승하는 방식으로 나타난다.

애정 갈등의 인물 구도를 살펴보면, 이전 시기의 경향, 즉 소극적이고 내성적인 인종과 희생의 인물들이 제1남녀주인공으로 윤리적 우위를 유지하고 있고, 돈과 성의 욕망에 대해 적극적인 인물들이 제2남녀주인공으로 설정되는 경향은 어느 정도 유지된다. 그러나 이전 시기『청춘의 윤리』와 달

www.kci.go.kr

리, 이 시기 작품에는 윤리를 무시하고 물욕·성욕 등을 얻어내고자 움직이는 제2남녀주인공들의 적극적 행동이 크게 강화되면서 사건의 흐름을 주도하기 시작한다. 그 변화의 시작은 후일담 소설이라 할 수 있는 『고원』을 제외한 이 시기의 첫 작품인 『도회의 정열』에서부터이다.

『도회의 정열』의 화려한 도시의 욕망을 지니고 있으나 연심 품은 남자에게 쉽게 몸을 허락하지 않는 두루미 같은 단정한 아름다움을 지닌 최국희, 『장미의 계절』에서 겉으로는 냉랭해 보일 정도로 단정하고 성실하여 홀아비인 소설가 한태세를 사랑하면서도 겉으로 드러내지 못하는 양재학원 교사 유경은, 『청춘산맥』에서 부모가 원한 잘못된 결혼으로 불행한 생활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윤리성 때문에 진실하게 사랑하는 남자에게 다가가지 못하는 김경란 등이 제1여주인공으로 배치되고, 진실하고 사려 깊으며 윤리적이나 소극적 성격 때문에 제1여주인공과의 사랑이 순조롭게 이루어지지 않는 의사, 판사, 교사, 소설가가 제1남주인공으로 설정되어 있다. 그러나 이전 시대와 달리, 새로운 시대의 바람이 된 미국적 근대성이나 육체적 욕망에 대한 적극적인 태도를 가진 인물들의 비중이 크게 상승하면서, 이들의 존재와 적극적 행동이 사건을 밀고 가는 힘으로 작용한다. 바람둥이 오하림이 풍기는 미국적 모던함에 대한 당대 여성들의 매혹이 매우 생생하게 포착된 『도회의 정열』에서는 약혼까지 파혼하고 오하림에게 몸을 바치고 결국 몰락하는 한혜련이 부정적인 인물로 묘사됨에도 불구하고 사건의 흐름을 주도한다. 『장미의 계절』에서도 긍정적인 인물인 제1여주인공 유경은에 비해 도발적인 제2여주인공인 여동생 유경채의 활력이 작품을 압도한다. 특히 이 두 작품에서부터는 내면적 진정성과 윤리를 중시하는 긍정적 여주인공조차 물질적 욕망에 흔들리고, 사랑을 빌미로 한 돈 거래도 시도한다. 『청춘산맥』은, 여전히 순결과 윤리를 중시하는 여자와 욕망을 인내하는 남자를 제1주인공들로 설정하기는 하나, 불륜, 이혼, 살인기도 등 1950년대 정비석 작품에 자주 등장하는 자극적인 비윤리적 사건들이 한꺼번에 등장하여, 제1기 작품의 막바지 모습을 보여준다.

이 시기의 작품 중 다소 독특한 작품이 『고원』과 『애련기』이다. 『고원』은 해방 후에 쓴 일제 말기에 대한 후일담 소설인데, 일제 말 만주로 도피하

www.kci.go.kr

는 제1남주인공 현오권이 마음으로는 냉랭할 정도로 소극적인 정숙한 여자 오영주를 사랑하나, 도피 길에 무작정 따라붙은 친구 아내인 김채옥과 일종의 불륜커플이 되어 중국에서 살게 되는 이야기이다. 내면적 진실함을 현실 속에서 실현할 수 없어 부도덕한 여자와의 결혼생활을 해가는 제1남주인공이, 일제 말의 떳떳치 못한 삶에 대한 상징으로 읽힌다는 점에서 흥미롭다.[8] 한편 『애련기』는 정비석 작품과 다소 어울리지 않는 신파성 강한 내용을 지니고 있다. 돈에 팔려 카페여급이 되고 사랑에도 실패하는 여공인 제1여주인공이 자학과 자기연민의 신파적 행동을 보여주는 이 작품은, 작가가 『실업조선』의 독자들이 생산직 근무자일 것이리라 예측하고 그 취향에 맞추어 쓴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 2편 중 『고원』은 내면적이고 소극적인 남자와 도발적이고 적극적인 여자가 쌍을 이루어 남녀 주인공으로 배치되어 있다는 점에서, 일제 말의 작품과 해방 후의 작품 사이의 과도기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측면이 있다.

2-3. 제3기, 성적 욕망의 전면화

이 시기는 1951년부터 1953년, 즉 얼추 전쟁기와 일치한다. 그러나 정비석의 작품에 전쟁의 흔적은 그리 강하지 않다. 해방 직후의 『고원』과 흡사한 발상으로 쓰인 『애정무한』만 예외일 뿐, 나머지는 애욕을 둘러싼 갈등이 중심을 이루는 작품들이다. 이 시기의 작품들은, 제2기의 변화가 지속되고 더욱 강화되면서 여성들의 적극적인 성적 욕망과 그 표현이 적극화되고 이들을 탐하는 남성 인물의 욕망과 행동이 전면화하면서 작품을 주도한다.

1951, 『애정무한』, 창조사, 1951.
1951, 『여성전선』, 『영남일보』 연재. (한국출판사, 1952)
1951, 『세기의 종』, 『영남일보』 연재. (세문사, 1954)
1951, 「심해어」, 『영남일보』 연재. (『인생여정』으로 개제하여, 문흥사, 1954)

8) 소설의 첫 부분에서, 이러한 삶에 대해 "돌은 던질 자격이 있거든 돌을 던져보라"는 성경 구절을 인용하며 "여하한 경우를 막론하고 도대체 사람은 남을 비방할 자격이 없을 것이다"라고 쓰고 있다. 정비석, 『고원』, 백민출판사, 1946, 7쪽.

1952, 『번지 없는 주막』, 『신태양』 연재. (향문사, 1954)
1953, 『월야의 창』, 『희망』 연재, (정음사, 1955)

제3기의 작품 중 『애정무한』은 매우 예외적인 작품이다. 제3기 작품 중 유일하게 내면적 진정성과 인고의 태도를 지닌 인물들이 제1남녀주인공으로 설정되어 있을 뿐 아니라, 정비석 연애・세태소설 전체를 통틀어 유일하게 연재 없이 집필된 전작 장편소설이기도 하다. 즉 다른 작품이 수용자들의 재미를 염두에 두고 그들의 당대 관심사와 취향 변화를 반영하는 태도로 쓰여진 것이라면, 이 작품은 작가 자신이 말하고 싶은 바, 즉 급격한 정치적 변화 직후 자신의 입장과 심사를 드러내고자 하는 동력이 더 크게 작용한 작품인 셈이다. 게다가 『애정무한』은 논픽션인 척하는 설정과 액자소설의 구조 등에서 『고원』과 매우 흡사한바[9], 전쟁 중 불가피하게 부역을 하고 핍박을 받는 과정을 그려내 해방 직후 조선문학가동맹에 이름 올린 전력에 대한 변명의 의도가 읽히는 작품이다. 이외의 작품은 모두 신문과 잡지에 연재된 작품으로, 일간지와 대중적 오락지에 꾸준히 연재를 한 것으로 보아 전쟁 중에도 그의 대중적 인기는 점점 올라가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 시기의 작품들에서는, 물질과 성에 대한 욕망을 실현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행동하는 여성인물을 작품의 전면에 배치하는데, 이러한 인물이 그다지 부정적이지 않은 제1여주인공으로 설정된다는 점이 제2기와 가장 뚜렷하게 달라진 지점이다. 『여성전선』의 긍정적 여주인공 유옥란은 적극적이며 자기의 의견을 거침없이 개진하는 직장여성으로, 자신을 좋아하는 두 남성 사이에서 시쳇말로 '양다리'라고 할 만한 애정의 줄타기를 한다. 『월야의 창』에서는 친구의 애인을 빼앗는 등 악행으로 자신의 욕망을 채우는 황정임이 결국 작품 내 징벌이 이루어지는 부정적 여성인물로 형상화되나, 이렇게 부정적인 인물이 착하고 소극적인 여주인공을 완전히 압도하면서 제1여주인공으로 부상해있다는 점이 주목할 만하다.

9) 『고원』은 서술자가 '현오권'의 수기를 발견하였고 이를 그대로 옮긴다는 내용의 액자틀을 서장으로 설정하고, 현오권이 새로운 서술자가 되어 일인칭으로 소설을 전개한다. 한편 『애정무한』은 서장에서, '나'로 설정된 소설가 '정 선생'이 대구 달성공원 상화시비(尙火詩碑) 앞에서 만난 한 남자의 전쟁 체험을 그대로 옮긴다는 설정을 해놓고, 이후는 그 남자를 서술자로 삼아 일인칭으로 소설을 전개한다.

그에 비해 인고하는 소극적이고 희생적인 전자의 여성 인물은 작품의 후면으로 물러나 있거나, 현실에 적응하지 못하는 인물로 그려지거나, 성적 욕망 때문에 크게 흔들리는 인물로 형상화된다. 『인생여정』(원제 「심해어」)의 제1여주인공 김경애는 몰락한 부잣집 딸로, 약혼자에게 파혼당하고 두 차례나 겁간을 당하며 진정으로 사랑하는 남자와의 사랑은 이루지 못한다. 그는 현실에 적응하지 못하는 '심해어(深海魚)'로 의미화된다. 또한 『세기의 종』의 윤리를 지키려 노력하는 제1여주인공 민영심은, 남편의 생사를 알 수 없어 미망인이나 다를 바 없는데 새로운 사랑을 억제하며 정조를 지키려 노력한다. 그러나 그 역시 밤에는 성적 욕망을 제어할 수 없어, 사랑하지도 않는 호색한들과 동침해버리고 결국은 자살로 생을 마감한다.

이 시기에는 남성 인물형도 돈과 권력을 이용하여 여성의 육체를 탐하는 행동이 적극화되어 나타난다. 그에 따라 여성 인물들이, 남자들이 자신에게 지니는 호감과 성적 욕망을 이용하여 거래를 하는 양상 또한 자주 발견되는데, 이러한 여자들이 수완 좋은 여자, 능력 있는 여자로 형상화된다.

드디어 제3기에 이르러 정비석의 작품은, 제1기부터 정비석의 특징으로 부각된 점이 시대의 큰 흐름과 확실히 합치되었다. 성과 물질에 대한 욕망을 적극적으로 드러내는 인물에 대한 관심을, 인고・순결 등 윤리의 뒤편에 밀어 넣지 않아도 되는 시기, 그것을 특장으로 드러내는 것이 대중의 큰 호응을 얻게 된 시기에 도달한 것이다. 정비석은 드디어 자신의 시대를 만났다.

2－4. 제4기, 자본주의적 욕망과 사회문제의 결합

제4기는 정비석의 장편연애・세태소설의 최고 절정기이다. 일간지를 중심으로 한 연재가 주를 이루는 시대로, 가장 인기 있는 소설가로 인정받는 시기인 동시에, 정비석의 여러 특장이 복합적으로 작품에 드러나는 시기이기도 하다.

이 시기의 작품들은, 제3기에서 보여주었던 세계, 즉 성과 물질에 대한 욕망을 전면화한 여성들, 돈과 권력을 바탕으로 여성의 성을 탐하는 남성들의 이야기가 기본을 이루면서, 여기에 다른 사회문제 즉 정치적 부패나 세

대 갈등 등 다양한 사회문제들이 함께 결합하여, 당대의 세태를 좀 더 풍부하고 입체적으로 보여준다.

1954,『자유부인』,『서울신문』 연재. (정음사, 1954)
1954,『산유화』,『여원』 연재. (여원사, 1956)
1955,『민주어족』,『한국일보』 연재. (정음사, 1955)
1955,「나비야 청산 가자 ,『국제신보』 연재. (『여성의 적』으로 개제하여, 정음사, 1956)
1957,『낭만열차』,『한국일보』 연재. (동진문화사, 1958)
1957,『야래향』,『여원』 연재. (문성당, 1957)
1957,『슬픈 목가』,『동아일보』 연재. (1957)
1958,『유혹의 강』,『서울신문』 연재. (신흥출판사, 1958)
1958,『파랑새의 꿈』,『서울신문』 연재. (금성출판사, 1984)

이제 여자들의 성적 적극성과 도발성과, 여성의 육체를 욕망하여 금력과 권력을 동원하는 남성들의 행동은 더 이상 새롭거나 신선한 것이 아니다. 제3기의 작품이 그러하듯,『자유부인』,『여성의 적』,『낭만열차』,『유혹의 강』 등 제4기의 작품에서도 이러한 인물들이 부동의 제1남녀주인공이다. 게다가 이전 시기 젊은 주인공들과 비교하여 중년 남자, 유부녀, 한글학자 등으로까지 확산되어 있다는 점은, 성욕과 물욕을 전면화하는 현상이 젊은이나 특정 직업인들의 새로운 풍조가 아니라 이 시대를 특징짓는 주도적 흐름으로 자리 잡았음을 보여준다.

이러한 인물이 긍정적 인물로 형상화되는 경향도 이전 시기에 비해 강해졌다.『민주어족』에서는 자기표현이 대담하고 현대적이며 댄스를 즐기는 대졸여성 강영란과 기업체 사장 박재하가 제1남녀주인공인데, 모두 매우 긍정적인 인물로 설정되어 있다. 적극적이며 현대적이고 자기의사 표현이 비교적 뚜렷한 그들에게, 작가는 성적 도발성 대신 성실함과 진정성 등의 가치를 부여한다. 그에 비해 내면적 고민이 깊은 소극적 인물인 미망인 강영희와 그의 옛 애인인 변호사 오창준은 진실함을 미덕으로 갖추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문제적 상황을 과감히 해결하지 못하는 다소 답답한 인물로 그려져 있다. 제2기『장미의 계절』의 직설적이며 성실한 사업가 강사웅, 제3기

www.kci.go.kr

『여성전선』의 현대적 여성 윤옥란 등에서 보여준 경향이 훨씬 더 진전된 양상으로 나타난 것이다. 또한 한편으로 직설적이고 예의 없고 자유분방하고 관능적이면서도 당당하고 성실하거나 야무지고 현명한 대학생 인물들로의 변주도 이루어지고 있다. 대신 소극적인 인물의 비중은 크게 줄어들고 있다.

이러한 연속성이 있는 반면, 이 시기만의 특징도 분명하다. 정·재계는 물론 젊은이들에게까지 퍼져있는 전사회적(全社會的)인 부패, '사바사바'라는 말을 유행시킬 정도로 만연된 뒷거래, 사회문제로 대두된 전쟁미망인 문제, 도시의 만성화된 실업과 농촌 진흥의 문제, 공업의 진흥, 중년과 젊은이들의 세대갈등 등, 다양한 사회문제에 적극적인 관심을 보이는 점이 그것이다. 즉 성과 물질에 대한 적극적 욕망 표출로 인한 애정 갈등을 기본적 내용으로 깔아놓은 위에, 앞서 열거한 다양한 사회문제들을 결합해내고 있는 것이다. 이미 많은 연구자들이 지적한 바와 같이 『자유부인』은 단순히 유부녀의 춤바람 이야기만을 다루고 있는 것이 아니라, 얄팍한 잇속만 챙기는 속물 국회의원, 비리가 생활화된 공무원, 이를 기반으로 수입품과 목돈 챙기기에 몰두하는 그의 아내들, 뇌물로 학점을 사려는 대학생과 이를 받아 챙기는 교수 부인까지 당대의 부패한 사회상이 촘촘히 배치되어 있으며, 다른 작품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난다. 특히 한 작품에서 특정 사회문제를 집중적으로 부각시키는데, 『자유부인』에서 부정적 사회현실을 집중적으로 보여줌으로써 오히려 필화까지 당한 이후에 작심한 듯 쓴 『민주어족』에서는 이러한 부패한 현실을 극복할 정치·경제·사회의 건전한 움직임들을 집중적으로 조망하고, 『유혹의 강』은 전쟁으로 생겨난 다양한 종류의 미망인의 문제를 제기하며, 야당지 『동아일보』에 연재한 『슬픈 목가』에서는 도시의 실업자와 범죄자들을 데리고 농촌에 내려가 땅을 개간하는 젊은이의 이야기를 다룸으로써, 소비적이고 타락한 도시의 문제를 노동과 생산으로 해결해야 함을 이야기한다. 『낭만열차』는 노년으로 들어서는 교수의 늦바람을 중심에 놓고 권위가 붕괴된 가장, 사랑 없는 노부부, 당혹스러운 젊은이들의 등장 등 작가의 눈에 포착된 다양한 세태를 종합적으로 얽어놓은 작품이다.

제4기의 작품 중 『산유화』와 『야래향』은 다소 예외적인 작품으로 보인다. 제3, 4기의 작품에서는 거의 나타나지 않는, 진실하고 사려 깊고 성실한

www.kci.go.kr

인물들의 사랑이 전면에 배치된 작품들이기 때문이다. 이 두 작품 모두 여성 월간지인『여원』에 연재된 작품으로, 여성지를 즐겨 보는 여성 독자들은 진실한 사랑, 서정적인 사랑 이야기 등에 더 관심이 있고, 성욕과 물욕을 적극적으로 드러내는 인물이나 사회문제 등에 대해서는 관심이 덜할 것이라는 독자의 취향에 대한 냉철한 판단이 작용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한편 아동청소년소설로 볼 수 있는『파랑새의 꿈』도 주류 경향과 괴리가 있는 예외적 작품이다.

2-5. 제5기, 반복과 퇴행

이 시기는 정비석의 장편연애·세태소설의 마지막 시기이다. 단행본 출간 여부를 생각지 않는다면 1970년대 초까지 작품이 생산되므로 한 시기로 보기에는 다소 긴데, 전성기를 지나 반복과 퇴행이 나타나고 작품의 생산량도 점점 떨어지는 시기라는 점에서 한꺼번에 묶어 설명하는 것이 크게 무리는 아니라 보인다.

1959,『사랑의 십자가』,『아리랑』 연재. (삼중당, 1959)
1959,『비정의 곡』,『경향신문』,『월간 화제』 연재 중단. (삼중당, 1960)
1959,『화혼』,『국제신문』 연재. (삼중당, 1959)
1959,『인간실격』,『여원』 연재. (정음사, 1962)
1959,『연가』,『서울신문』 연재. (삼중당, 1961)
1960,『에덴은 아직도 멀다』,『조선일보』 연재. (민중서관, 1962)
1963,『욕망해협』,『동아일보』 연재. (노벨문화사, 1971)

이 시기의 작품은 제3, 4기의 성욕과 물욕 때문에 생기는 애정갈등을 반복하나, 작품의 완성도나 밀도가 이전 시기의 작품에 비해 크게 떨어져 있고 시대변화를 민감하게 포착하는 순발력이나 세태에 대한 담론을 주도하는 힘도 크게 떨어져 있다. 이미 더 이상 새롭거나 참신하지 않은 성욕·물욕 이야기가, 다소 힘이 빠진 상태로 반복되는 것이다.

새로움이 사라지고 힘이 빠지면서, 노화와 퇴행의 다른 현상도 나타나고 있다. 하나는, 인물과 사건에서 다소 '올드패션'이라 할 만한 대중예술에서

www.kci.go.kr

익숙하게 반복되던 패턴이 등장한다는 점이다. 『사랑의 십자가』에서는 겁간으로 임신한 어머니를 대신해 그 죄를 뒤집어쓰고 아이를 키우는 여주인공이 등장하고, 『화혼』에서는 거짓 편지, 부모에 의한 부잣집 아들과의 강제 결혼 시도, 가난한 남자주인공의 공금 횡령 등이 주요한 사건 전개의 모티브가 된다. 이것들은 모두 식민지시대 이래 대중예술에서 익숙하게 반복되어 온 상투형이지만 정비석의 이전 소설에서는 잘 발견되지 않았던 것들인데, 새삼스레 이러한 요소가 등장하는 것은 확실히 정비석의 퇴행으로 볼 수 있다. 대중예술 경향의 변화에서 흔히 나타나는 전형적인 '끝물 증상'으로, 아직 참신한 새 경향이 나타나지는 않았거나 적어도 정비석이 그에 적응하지는 못한 상태로 보인다. 이러한 과도기에 흔히, 상투성이 강화되면서 작품의 완성도가 떨어지고 옛 경향으로 회귀하는 퇴행현상이 나타나는 것이다.

또한 『비정의 곡』을 거쳐 『에덴은 아직도 멀다』, 『욕망해협』 등에 이르기까지 줄곧 남자주인공의 나이가 중노년으로 설정되는 것도 흥미롭다. 이들에 비해 다소 젊은 남자주인공인 『연가』도, 『여성의 적』과 비슷한 구도인데 주인공이 중년으로 설정된 것을 보면, 확실히 이전의 작품에 비해 남자주인공의 나이가 많아지는 경향이 뚜렷하다. 이들 남자주인공들에게도 성욕의 문제는 전면화되어 있으나, 젊은 주인공들이 주도하는 작품에서만큼 활기를 만들어내지도 못하고 여타 사회문제와 결합하는 패기만만함도 사라져 있다. 특히 이들 인물의 늦바람 대상으로, 얌전하고 진실하고 순종적이며 결혼조차 요구하지 않는 화류계 여성이 가장 이상적이고 아름다운 여성으로 설정되어 있다. 소극적이며 얌전한 희생적 여자가 다시 중요한 인물로(혹은 긍정적이며 비중 있는 인물로) 배치되는 경향을 보여주고 있을 뿐 아니라, 그것이 식민지시대 이래 반복되어 온 '화류비련'의 여주인공 인물형의 연장선상에 있다는 점을 역시 주목할 만하다. 이 경향은 『낭만열차』에서 이미 나타난 바 있는데, 제4기에 이르러 매우 강화된 양상을 보인다. 이 역시 노화와 퇴행의 증상이라 할 만하다.

이렇게 작가가 감정이입을 하고 있는 인물이 중노년으로 설정되면서, 이들이 20대의 젊은이들과의 세대차이의 당혹감을 드러내는 대목이 크게 늘

www.kci.go.kr

어나는 것도 흥미롭다. 더 이상 작가가 젊은이들에 대한 이해와 공감에 한계를 드러내고 있음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이 과정을 거쳐 1960년대로 들어서면서 정비석은 4월혁명의 주체인 대학생들의 반발로 신문연재를 중단하는 필화사건을 겪고, 1960년대의 새로운 연애·세태소설의 경향으로 나아가지는 못한 채 1950년대의 구도를 반복하다가 연애·세태소설의 집필을 중단한다. 이는 1960년대에 이르러서는, 1940, 50년대 정비석이 적극적으로 형상화한 세상의 모습, 즉 욕망을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이를 거래하는 인물형과 그들이 주조하는 세상의 모습이 1960년대에는 더 이상 참신하지도 않고 새로운 연애·세태소설의 수용자들을 만족시키지도 못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가 만든 인물과 갈등 구도가 1960년에는 대중성에서 시효를 다해가고 있었다고 보는 것이 옳으며, 이렇게 그의 연애·세태소설의 시대는 끝나가고 있었다.

3. 정비석의 세계인식과 태도, 그리고 1940, 50년대

3-1. 정비석 장편연애·세태소설의 매체와 수용자

정비석의 장편연애소설을 살펴보면 흥미로운 지점을 발견하게 된다. 작품경향이 시대와 세상의 변화에 따라 조응하고 있을 뿐 아니라, 매체에 따라 민감한 변화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중앙의 일간지, 지방의 일간지, 종합 오락잡지, 여성지, 특정 직업의 사람이 많이 보는 전문지 등은 타깃이 되는 주요 독자가 다른데, 정비석은 이를 염두에 두고 작품을 쓰고 있음이 발견되는 것이다.

정비석의 장편연애·세태소설의 발표 지면을 살펴보면, 일제 말기의 친일적 성격의 중앙 일간지, 해방 직후 잠시 잡지 중심의 활동을 하다가 점차 일간지로 진출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후 전쟁을 계기로 영남의 일간지로 이동한 이후, 환도 후 최고 전성기에는 중앙의 일간지를 중심으로 활동을 하고 1950년대 말에 중앙 일간지를 어느 정도 유지하면서 잡지 연재를

www.kci.go.kr

병행한다. 그리고 1960년대에 들어서는 잡지 연재가 사라지고 중앙 일간지에 가끔씩 연재를 하다가 장편연애·세태소설 집필을 종료하는 일련의 흐름을 보여준다. 이러한 흐름을 살펴보면 정비석 장편연애소설의 주 타깃 독자는 중앙의 일간지 독자임을 알 수 있다. 이 시기 중앙 일간지의 주 타깃이 도시의 교육 받은 성인 남성층임을 생각하면, 정비석이 목표로 삼은 주요한 독자 역시 이들이라고 보아도 좋을 것이다.

그런데 정비석 장편연애소설은 이러한 대체적 경향 속에서 간간이 그 외의 매체와 만나고 있는데, 그 지점에서 작가가 매우 명확하게 독자를 위한 배려를 하고 있음이 눈에 띈다. 주로 잡지를 중심으로 활동하던 시기에 『실업조선』에 연재한 『애련기』, 신문 연재가 중심을 이루던 1950년대에 대중지 『신태양』에 연재한 『번지 없는 주막』, 여성지 『여원』에 연재한 『산유화』와 『야래향』, 그리고 중앙 일간지에 연재하던 시기에 지방 일간지 『국제신보』에 연재한 『여성의 적』(원제 「나비야 청산 가자」)이 그것이다. 이들 작품은 그 시기 중앙 일간지에 연재하는 작품과는 다른 경향을 지니는데, 그것은 그 매체의 독자들에 대해 작가가 배려한 결과로 보인다. 앞서 분석한 대로, 강한 신파성을 드러내는 「애련기」는 다소 문화자본이 낮다고 보이는 『실업조선』의 독자들을 겨냥한 작품이고, 일간지 연재에서 세련된 대도시의 아프레걸 인물형을 발전시키고 있던 시기에 오락적인 대중지 『신태양』에 연재한 「번지 없는 주막」에서는 항구 술집에서의 애욕 싸움과 성애 묘사에 치중하며 대중가요 가사를 자주 인용하는 등 쉽고 익숙한 재미를 노린다. 이보다 다소 교양적인 오락지 『희망』에 연재한 「월야의 창」도 이 시기 일간지 연재소설들보다는 애인 뺏기, 결혼 방해, 양다리 걸치기 등 여주인공의 자극적 행동이 매우 부각되어 있어, 일간지와 오락 중심 월간지의 독자 취향을 다르게 설정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한편 여성지 연재 첫 작품인 『산유화』는 그의 다른 작품과 달리 지고지순한 사랑을 하는 순정적 인물을 크게 부각시키고 김소월의 시를 계속 인용하여 서정적 분위기를 강화하여 고학력 여성 독자의 취향에 대한 적극적 고려를 보여준다. 특히 김소월 시의 인용은, 당시 서양적 세련됨을 과시하는 젊은 감각의 로맨틱코미디 영화 <여사장>(1959), <자유결혼>(1958) 등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난다는 점에서, 젊은

www.kci.go.kr

대도시의 고학력 대중예술 수용자들의 취향과 관심사를 놓치지 않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후 『야래향』은, 『산유화』처럼 소녀취향적 서정성을 드러내지는 않지만 여전히 상대적으로 순정적 사랑이 강조되어 있다. 한편 지방 일간지에 연재한 『여성의 적』은 같은 시기 중앙 일간지 수록 작품처럼 다양한 사회문제와의 결합 양상이 거의 나타나지 않고 오로지 바람둥이 남자주인공의 여성 편력에만 집중하고 있다는 점에서 중앙 일간지에 비해 지방 일간지의 독자들이 사회문제에 대한 관심이 더 적은 독자들로 상정하고 있음을 짐작할 수 있다.

그의 이러한 목표 수용자의 취향 설정이 정확했든 아니든 간에, 당대에 가장 민감한 대중성의 촉수를 지닌 대중소설 작가가 보여준 매체와 그에 따른 수용자들의 차이, 그들의 취향 차이에 대한 인식은 주목할 만한 대목이다. 특히 정비석의 장편연애・세태소설이 중앙 일간지의 독자를 중심적인 독자로 설정하고 있었고, 그 독자를 대상으로 한 인기몰이가 오랫동안 성공적이었음은 그의 작품세계가 지닌 당대적 의미를 짐작하는 데에 중요한 바탕이 된다. 사실, 정비석 작품이 당시 모든 계층과 집단에 고른 호소력을 가졌다고는 볼 수 없다. 대중예술 취향은 같은 시대라 할지라도 계층・집단별로 큰 차이를 보이기 때문이다. 즉 정비석 작품이 최고의 인기를 누리고 있던 1950년대에, 정비석의 연애・세태소설과는 전혀 다른 질감과 세계전유 방식을 지닌 여성국극과 신파적인 악극도 최고의 전성시대를 구가하고 있었음을 기억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이렇게 다기한 취향의 대중들 중에서, 정비석 연애・세태소설의 수용자 대중은 여론 주도 능력이 큰 종합일간지의 독자들이었고, 그것은 당시 정비석이 1950년대 대도시, 중산층, 중등학력 이상의 남성들의 관심사와 욕망, 그 변화의 한복판에 위치해 있었음을 말해주는 것이다. 즉 이들 독자들의 변화야말로 당시 한국사회의 세태와 풍속에 대한 여론과 감각이 어디로 흘러가고 있는지를 가장 예민하게 드러내고, 강한 여론주도능력으로 다른 집단에까지 강한 영향을 주는 사람들인 것이다.

www.kci.go.kr

3-2. 1940, 50년대의 변화와 그 방향

이러한 정비석의 대중들이 지닌 특성을 고려하며 연애·세태소설들의 흐름을 살펴보면, 이 시기 도시의 여론주도층들의 관심과 욕망이 어디로 흘러가고 있었는지를 짐작할 수 있다. 아주 범박하게 요약하면, 대중들의 관심이 소극적이고 인고의 태도가 강한 사람들에서 점차 자신의 욕망을 드러내고 기존 윤리를 거스르고 도발하는 인간들로 옮아갔다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다. 직업으로 보자면 여성의 경우 간호부 같은 단정한 직업에서 여비서나 다방 마담처럼 성과 미모 혹은 경제력이 겉으로 드러나는 인물로, 남성의 경우 문인 등 내면이 강조되는 인물애서 사장이나 기술자 등 돈과 물질을 만들어내는 인물들로 옮겨가는 양상이다.

이러한 경향은 해방과 미군정의 시작을 계기로 본격화되어, 전쟁을 경유하면서 확고해졌다. 본격화가 시작되는 시기에, 미국유학을 다녀온 바람둥이 남자에게 매혹당하는 이야기를 다룬 『도회의 정열』이 위치해 있음은 우연이 아니다. 이러한 경향은 제3기인 1950년대 초를 경유하면서 확고해졌고, 휴전과 환도 이후인 제4기로 향해 가면서 이제는 거스를 수 없는 대세가 되었음을 보여준다. 적어도 도시에서 거주하는 젊은 미혼의 인물들에서 소극적인 인고의 인물형이 거의 사라졌고, 그것은 이러한 인물형이 더 이상 젊은 대중들의 욕망의 대상이 아니고 세상의 흐름과도 맞지 않는다고 작가가 판단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대신 제4기인 1954년의 작품부터는 대중의 변화를 기정사실화하면서, 이 부박한 욕망을 다양한 사회현상과 결합하여 비판하고 대안을 모색함으로써, 비윤리적 소설이라는 사회적 낙인에 대한 도피처를 마련한다.

적어도 정비석 소설로 미루어 본다면 이 시기 대도시 일간지의 독자대중들은, 인간이 세대와 계층을 불문하고 성욕·물욕을 지닌 존재임을 깨닫는 과정을 꽤나 즐겁고 자극적으로 받아들이고 있었고, 이와 함께 점차 이렇게 변해가는 세상의 부박함에 대한 윤리적 불안감 역시 커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제4기에 이러한 경향이 정점에 이른 것은, 분단과 전쟁 등이 일단락되어 상대적으로 자유로워진 분위기를 누리게 된 전후 시기라는 점, 그

러면서도 정치・경제에서 모두 1950년대의 한계를 드러내며 결국 혁명으로 향하고 마는 제5기와도 다소 차별성이 있는 시기였기 때문일 것이다. 미국적 세련됨과 그 생활방식에 대한 적극적 관심이 하늘을 찌르던 1950년대의 가장 화려하고 자유분방했던 시기가 전후 4, 5년간이었음을, 정비석 작품들은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한편 제5기의 작품들은, 작가의 노화・퇴행으로 당대의 젊은 독자들과 다소 유리되기 시작함으로써, 소설을 통해 대도시 젊은 독자대중의 관심사나 세계전유방식을 읽기 힘들어진다. 단 그 유리현상으로 미루어보건대, 욕망의 구현에 적극적인 인물들의 존재는 여전하나 그에 대해 참신하거나 화려하게 느끼는 태도, 그들에 대한 불안하면서도 호감 어린 관심이 확연히 후퇴한 것 정도를 읽을 수 있을 뿐이다. 실제로, 1958년을 계기로 풍속에 대한 사회의식과 여론이 보수화되는 경향을 보인 것[10]도 이러한 현상과 조응하고 있다. 1950년대를 거치면서 이미 자유분방해진 도시의 젊은이들은 어떠했을지 몰라도 중장년 남성들이 주도하는 여론은 상당히 보수화되고 있었고, 이는 1950년대의 새로운 분위기에 대중들이 마음 한 편에 지니고 있던 불안감이 정치와 경제 모두에서 위기를 드러낸 1950년대 말에 응집되어 상승한 것으로 짐작할 수 있다. 하지만 제1공화국 시대가 지나고서도 정비석은 연애에서든 세태에서든 새로운 양상을 보여주지 못하고, 『에덴은 아직도 멀다』에서 모든 세대들의 사랑이 실패하는 설정 등으로 4월혁명의 정치적 격동 과정에 대한 불편함만을 드러낼 뿐이다. 1960년대에 들어서서 정비석은 새롭게 청장년으로 진입한 대도시 대중들의 세계전유방식과의 조응에는 계속 실패하는 것으로 보이며, 이제 정비석의 연애・세태소설로 당대 사회의 첨단에서 빛나는 새로운 현상과 대중적 욕망을 읽어내는 일은 가능하지 않게 되었다.

10) 이선미, 「젊은 『여원』, 여성상의 비등점」, 권보드래 외, 『아프레걸 사상계를 읽다』, 동국대출판부, 2009, 284-286쪽; 이영미, 「신파성, 반복과 차이-1950년대 악극・영화・방송극 」, 같은 책, 318-324쪽.

3-3. 돈, 권력, 성, 욕망의 질주와 거래, 그리고 통념적 윤리

그렇다면 이러한 흐름 속에서 유지되고 있는 정비석의 세계전유방식, 세계인식과 태도는 무엇인가. 이것은 그가 최고의 인기를 누렸던 1950년대 대도시의 여론주도층이 선택한 새롭고 참신한 세계인식이기 때문에 의미 있다.

정비석의 연애・세태소설이 보여준 가장 두드러지는 세계인식은, 인간이 욕망을 가진 존재이며, 세상의 중심은 윤리적이거나 자기성찰 능력과 욕망 절제 능력을 가진 사람이 아니라, 성욕・물욕 같은 기초적 욕망을 과감히 드러내고 재빠르고 적극적으로 욕망의 대상을 갖고자 움직이는 사람이라는 것이다.[11] 작가는 작품에서 종종 욕망 절제 능력을 지닌 윤리적인 인물에 높은 가치를 부여하지만, 실제로 작품들의 변화추이에서는 존재감이 점점 약해지고 급기야 사라져버리기도 한다. 성욕・물욕은 남녀노소 인간 모두에게 매우 강력하게 존재하는 것이며, 선하고 도덕적인 인간이나 심지어 순결을 지켜야 한다는 미망인조차 이로부터 예외가 아님을 인정한다. 작가는 이러한 욕망들이 인간을 움직이는 가장 큰 동력이며 이를 과감히 드러내고 성취하고자 하는 사람들의 세계가 나름대로 멋지고 행복하며 인간적인 삶이라고 느끼게 한다.

정비석 소설에서 이 기초적 욕망은 돈, 권력, 성에 대한 욕망으로 요약되고, 작가는 이것들을 모두 '힘'으로 환산한다. 힘은 그 속성상 타인에게 영향을 미친다. 세상은 힘과 힘이 충돌하면서 겨루고 경쟁하는 곳이며, 그 힘은 돈, 권력, 성에서 나온다고 보는 것이다. 인간들은 자신의 힘을 근거로 타인을 누르거나 타인의 힘의 근원을 빼앗아 패배시키고자 하며, 때때로 적절히 흥정하고 거래한다.

두드러지는 점은, 이 중에서 성을 특별히 부각시키면서 그것이 돈이나 권력과 마찬가지로 힘의 근원이며 따라서 거래될 수 있는 것임을 강조하고 있

11) 안미영도, 정비석의 주요 소설에 나타난 윤리가 시대에 따라 계속 변화하며 따라서 그것은 : 현세적 생존과 안녕에 직결된: 것일 뿐 보편적 윤리가 아니라는 점을 지적한다. 안미영, 「정비석 대중소설에 나타난 '윤리' 고찰-『청춘의 윤리』, 『애정무한』, 『민주어족』, 『에덴은 아직 멀다』를 중심으로」, 『개신어문연구』 21호, 개신어문학회, 2004, 454-455쪽.

다는 것이다. 남녀의 연애 이야기를 중요하게 배치하는 정비석의 연애・세태소설에서, 단지 사랑의 감정이 아니라 성이 중요한 소재로 떠오르는 것은 이런 이유 때문이다. 특히 여성이 쥐고 있는 힘의 근원을 성으로 보는데, 이는 여성 대부분이 사회적 권력으로부터 소외되어 있던 시대에 상당히 타당성 있는 인식일 수 있다. 남성인물이 주로 돈과 권력으로 힘을 발휘한다면 여성인물은 남성이 갖고 싶어 하는 성을 쥐고 있으며, 그것을 근거로 남성과 힘겨루기를 하고 거래를 한다. 정비석 소설의 여성인물들은 자신에게 호감을 지닌 남성에게 무엇인가를 요구하고 얻어낸다. 비록 자신은 그 남자를 좋아하지 않고 앞으로 연애를 할 의사도 없으면서도, 그 남자에게 돈을 꾸고 지인의 취직을 부탁한다. 속으로는 '이 남자가 내가 좋아하는 그 남자였다면 얼마나 좋을까'라고 생각하지만, 겉으로는 이를 드러내지 않고 돈과 권력을 가진 남자로부터 이득을 챙긴다. 여기에서 남자가 여자에게 가지고 있는 호감이란, 좀 더 적나라하게 말해 여자를 성적으로 정복하고 싶어 하는 욕망으로 귀결되므로, 결국 여성은 자신의 성적 매력의 힘으로 남자의 돈과 권력을 얻어 쓰는 것이다. 이들 작품에서는, 이를 잘 발휘하는 것이 여성의 사업수단이고 능력이다. 그런 점에서 정비석 소설에서 여자는 본성적으로 매춘부이다.

여기에서 주목할 것은, 성적 매력으로 거래하는 여성인물이 반드시 부정적으로만 그려지지 않는다는 점이다. 『청춘의 윤리』, 『장미의 계절』 등 초기 작품부터 여성 인물은, 그 남자를 결혼할 만큼 좋아해서가 아니라 그 남자에게 빚을 졌거나 그 남자가 자신의 일을 도와주었기 때문에 결혼하는 전형적인 거래의 행태를 보여주며, 그것을 그다지 비윤리적인 것이 아닌 범상하고 당연한 일로 형상화한다. 이후의 작품은 남자로부터 이득만 취할 뿐 결혼조차 하지 않는 여성들도 많이 등장한다. 『세기의 종』이나 『여성의 적』에서는, 남자의 호감을 이용하여 적절하게 밀고 당기고 거래를 하면서도 결국에는 성을 허락하지 않은 채 이득만 취하는 여자를 영리하고 현명한 여자로 형상화한다. 상대방이 탐하는 것을 내어주지 않고 이득을 취한다면 현명한 거래를 한 것이기 때문이다. 성이 거래되는 것임을 명확하게 보여주는 설정들이다.

www.kci.go.kr

바로 이 대목에서 성은 돈과 권력, 두 가지 특성과 묘하게 결합된다. 작품에서 성욕은 사랑이라는 관념과 다소 유리된 육체적 욕구로 그려지며, 비단 호색한만이 아니라 점잖은 지식인이나 심지어 미망인에게조차 마치 식욕처럼 처리되고 해결되어야 하는 욕구로 설정되어 있다. 그러나 한편, 성은 단순히 자신의 육체적 성욕을 만족시키는 것 이상의 의미를 지니는데, 바로 정복욕과 관련되어 있는 지점이다. 작품 속의 남성인물의 상당수는, 여성과의 동침을 자신의 육체적 성욕에 대한 만족뿐 아니라 그 사람에 대한 정복으로 받아들인다. 이때 성은 권력과 관련 있는 것이 되고, 당연히 다른 사람에게 정복되지 않은 여성을 자신이 정복하는 일이 매우 중요해진다. 즉 성은 거래하고 정복한다는 점에서 돈이나 권력과 밀접하게 연관된다.

이런 이유로 작품에서는 여성에게 정조(삽입성교의 한정적 의미를 지닌)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누차 이야기한다. 그것은 윤리적인 이유에서라기보다는 힘 관계 때문이다. 남자들은 여자를 정복하고 배타적으로 소유하고 싶어 하므로, 정조를 잃으면 쉽게 동침할 수 있는 여자가 되어 버리면 이미 남성의 정복욕을 자극하지 못하게 된다. 이렇게 되면 그 여자는 더 이상 성을 거래의 대상으로 삼지 못하게 되므로, 자신이 가진 최고의 힘을 잃어버리는 것이라는 논리이다.

> 정조! 그것은 모든 남성들이 새로운 여성들에게 항상 요구하여 마지 안는 여자의 무기인 것이다. 그것을 획득하기 위하여 모든 남성들은 여성을 감언리설로 꼬이고, 때로는 권모술책조차 쓰는 것이다. 그러나 여성들이어! 그대들이 남성들과 동등의 지위에서 대항할 수 있는 유일한 무기는 오직 정조뿐이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 그것을 빼았기까지의 시간이 짧으면 짧을수록 그대의 가치는 저락되고, 그것을 빼았기기까지의 시간이 길면 길쑤록, 그대의 인격적 가치는 높이 평가되는 것이다. 정조를 제공하기 이전에는, 여자는 사랑하는 남성에게 여왕의 권세를 가지고 군림(君臨)할 수도 있다. 그러나 정조를 제공하는 그 순간부터 여자는 사랑하는 남성 앞에서 노예의 지위로 전락된다. 여자가 정조를 허락한다는 것은 오직 그것만을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동시에 남성에 대한 지배적인 권세와 지위까지 박탈당하는 결과가 되는 것이다. 일단 정조를 허락하고 나면, 여자 자신의 인격이 아무리 고상하드라도 그 남자 앞에서는 굴복을 아니할 수 없기 때문이다.[12]

www.kci.go.kr

12) 정비석, 『도회의 정열』, 평범사, 1947, 201쪽.

그러나 이는 좀 더 넓게 보자면 단순히 성과 정조의 문제만이 아니다. 무언가를 바라는 사람이 약자가 되고 그것을 줄 수 있는 사람이 강자가 되어 그 힘을 바탕으로 힘겨루기를 하고 거래를 하며 자신이 욕망하는 것을 채우는 것이 세상사라고 보기 때문이다. 그런 점에서 사랑도 크게 다를 바가 없는 것이다. 『낭만열차』의 두 대학생은 아예, 사랑은 서로를 이용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한다. 바로 그런 점에서 여성이 성욕을 현명하게 통제하지 못하고 이를 채우려 남자와 동침할 때, 그 여성인물은 단지 사회적 명분뿐 아니라 자신의 유일한 힘의 근원을 잃은 약자 중의 약자로 전락한다.

성과 여성에 대한 이러한 태도는, 해방과 전쟁 등으로 사회의 안정성이 파괴됨에 따라 여성의 갑작스럽게 사회적 활동이 늘어나 여태껏 사회적 노동의 능력을 입증 받지 못한 여성들이 남성들이 보여주는 호감과 정복욕을 빌미 삼아 사회적 활동의 폭을 넓혀갔을 수 있다는 나름의 현실성을 지니고 있다. 그러나 여성이 오로지 남성의 성적 호감에 의해서만 존재가치를 인정받고 이를 근거로 살아가는 존재로 인식한다는 점에서 작가의 여성관은 매우 남성중심적이다. 정비석의 작품의 여성인물들은 고학력의 직장 여성임에도 불구하고 생산 능력, 사업 수완 능력, 사회와 자신의 일에 대한 나름의 주장과 의견 등을 거의 보여주지 못한다. 이러한 여성인물들은 과거의 다소곳한 여성들과 달리 겉으로 보기에는 남성과 동등하게 대화를 나누는 것처럼 보이지만, 자신의 의견을 이야기하기보다는 상대방의 말에 단순한 이의를 달거나 되묻고 감정을 드러내는 것에 치중해있다. 말하자면 이들 여성인물은 남성과 말상대가 되기는 하나, 그것은 의견교환이나 토론이라기보다는 시쳇말로 '밀당(밀고 당기기)'과 '수작'에 가깝다.

한편 이들 작품은, 돈・권력・성을 중심으로 움직이는 인물들의 태도와 행동에 대해 가볍게 평가하고 질책할지언정, 아름다움이나 진실성 등으로 미화하고 포장하지 않는다. 바로 이 지점이, 그와 함께 1950년대 대중소설 작가 '빅3'라고 할 만한 또 다른 두 작가 김내성・박계주와 정비석이 확연히 다른 지점이다. 기존의 보수적 규범과 윤리를 넘어서서, 돈・권력・성에 대한 욕망을 적극적으로 드러내고 이를 중심으로 경쟁하고 거래하는 인간의 이야기는 1950년대 대중소설 작가들이 모두 관심을 가지고 형상화했던

www.kci.go.kr

것들이기는 하다. 그러나 끝까지 내면적 진실성과 윤리성을 유지하는 인물형을 진정성 있게 지지한 김내성, 끓어오르는 성적 욕망과 명예욕에도 불구하고 성적 순결성과 고결한 윤리성을 고집하는 박계주와 달리, 정비석은 인간을 기본적으로 물질적 소유욕, 권력욕, 성욕 등을 얻기 위해 움직이고 거래하며 이득을 취하는 존재로 노골화하고 있는 것이다. 물론 정비석의 작품 안에서도 상대적으로 선한 주인공이 윤리와 진정성 등의 가치를 다소 지닌 존재로 그려지기는 하나, 그들 역시 돈・권력・성을 향한 이득을 위한 노골적 행동에서 예외는 아니다. 이러한 기초적 욕구는 인간의 본성이며 여기에서 누구도 예외일 수 없다고 보기 때문이다. 작품에서는 서술자의 해설을 통한 약간의 윤리적 질책과 냉소적 비판이 가해지기는 할지언정 인간의 이러한 본성에 대한 본질적인 비판적 성찰이 이루어지지 않으며, 따라서 독자에게 윤리와 진정성을 지닌 인물들의 행동을 통한 감동 같은 것도 주지 않는다. 대신 인간의 기초적 욕구와 그로 인해 발생하는 온갖 복잡한 욕망들, 이득을 향한 힘의 충돌과 유치하게 계산적인 심리의 변화 등은, 냉정하리만큼 적나라하고 섬세하게 그려낸다. 정비석의 연애・세태소설에서 윤리적인 것은 현실적으로도 정신적으로도 승리라고 할 만한 결과를 얻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비윤리적이어도 육체적 정조를 지키고 과감하고 명민하게 거래와 흥정을 잘하는 인물은 살아남고 자신이 원하던 것을 얻어내는 반면, 윤리적이어도 망설임이 많고 과감하지 못하며 정조조차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면 패배한다. 이러한 방식으로 움직이는 인간들의 행동과 심리에 대한 치밀하게 섬세하며 적나라한 형상화는 최근 케이블채널의 인기 프로그램 <재밌는 TV 롤러코스터>의 '남녀탐구생활'을 방불하게 할 정도인데, 이것이야말로 정비석 연애・세태소설이 지닌 인간관이 드러난 결과이며, 또 정비석 소설이 주는 재미의 원천이기도 하다.

이들 작품이 종종 희극적 국면을 많이 지닌 것도, 인간과 세상에 대한 이러한 태도 때문이다. 정비석의 작품들은, 진지한 작가들이 흔히 속되다고 할 만한 욕구・욕망, 행동과 심리를, 비록 주인공이라 할지라도 아름답게 포장하거나 두드러지게 의미화하지 않고 비교적 냉정하게 그려낸다. 누구나 인간에게는 비속한 본성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 그리고 그 대상으

www.kci.go.kr

로부터 거리를 떼는 것은 희극의 대전제이다. 특히 세태비판적 측면이 강해지는 제3기의 작품 이후에서 이러한 특성은 더욱 강화된다. 하지만 이들 작품은 당시 이른바 명랑소설이라 지칭되던 작품들과는 다른 색깔을 지닌다. 그저 부분적으로 희극적일 뿐이다. 서술자의 해설이 종종 희극적 태도를 버리고 노골적으로 윤리적인 태도를 보이며 훈계를 하기 때문이다. 인물들의 비속함이 진지하게 훈계해야 할 정도로 치명적인 것이라면 작품 전체가 희극적이 될 수는 없다. 희극적인 작품이란, 인물의 비속함을 한편으로 비판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그것이 이 세상이 그리 치명적이지 않음을 인정하는 태도의 소산이기 때문이다. 비속함, 추함, 악함을 희극에서 치명적이지 않은 것으로 치부할 수 있는 것은, 풍자에서처럼 그것이 결국 몰락할 것이라는 자신감의 소산일 수도 있고, 혹은 해학에서처럼 그 비속함이 인간 모두가 지니는 속성이므로 어쩔 수 없다는 애정 어린 포용의 태도의 소산일 수도 있다. 그러나 정비석의 작품들은, 이 둘 다 아니다. 작품의 이면에서는 돈・권력・성의 욕구와 욕망으로 움직이는 인간 본성이 변화될 수 없음을 분명히 드러내면서도, 표면적으로는 과시적으로 진지하게 윤리적 훈계를 하고 있기 때문이다. 즉 이 비속함은 해결될 수도 포용할 수도 없는 것이니, 작품은 희극이 되기 힘든 것이다.

이들 작품이 보여주는 윤리적 태도가 표면적이라는 것은 매우 주목할 만한 지점이다. 작가는 서술자를 통해 다소 과시적일 정도로 진지하고 노골적으로 윤리적 훈계를 하지만 그 윤리적 훈계의 수준은 매우 상식적이고, 비윤리적인 인물을 회계시키거나 파멸시키는 등의 회개 혹은 처벌의 결말을 보여주기도 하지만 일관성과 철저함을 결여한 채 그저 마무리를 위한 편의적 처리를 하는 경우가 많다. 무엇보다 이러한 윤리적 태도는, 작품 전체에서 일관되게 보여주고 있는 관점과 충돌한다. 오히려 이 윤리적 훈계나 결말은, 이 욕망을 실제로 즐기면서도 겉으로는 전폭적으로 긍정하지 못함으로써 생기는 대중들의 불안감이 도망갈 수 있는 심리적 도피처이며, 작가에게는 작품에 대해 쏟아질 윤리적 비판에 대한 방어막이라고 보인다. 작가는 작품에서 자신이 드러낸 새로운 인간과 세상을 자신의 것으로 받아들이고 현실적으로 직시하여 이를 사유와 성찰의 태도로 삼는 본격문학의 길을 가

www.kci.go.kr

지 않는다. 대신 이러한 인간들을 타자화하고, 보수적 규범과 윤리를 과시적이면서도 가볍게 드러내며 비판하고 처벌할 뿐이다.

애초부터 정비석의 소설은 반추나 성찰, 사유와는 거리가 멀어 보인다. 인물들이 욕망을 따라 질주하듯 소설의 흐름 역시 경쾌하게 앞으로만 달려나간다. 김내성처럼 논리적이고 입체적 짜임새를 만들고 일관성을 갖추는 데에 매달리지 않으며, 박계주처럼 현시욕 넘치는 서술에 시간을 보내지 않는다. 주요 인물들의 구도를 짜놓은 후 그들의 욕망이 움직이는 곳으로 거침없이 움직일 뿐이다. 그 욕망은 비속하나, 인물들을 제어되지 않는 욕망과 힘의 논리에 따라 매우 철저하게 움직이며 작가는 그 몸과 마음과 머리의 움직임을 놓치지 않고 치밀하고 세세히 추적한다. 그러나 그뿐, 그 자체에 대한 사유를 더 이상 깊이 있게 진행시키지 않으며 의미화를 위한 장치도 당연히 마련하지 않는다. 따라서 그의 소설은 섬세하나 가볍다. 욕망과 힘의 논리로 움직이는 세상의 흐름에 가볍게 그러나 철저하게 몸을 싣고 그것을 따라간다. 마무리 역시 가볍다. 갈 데까지 가다가 우연으로 사건은 마무리되고, 주인공 한 사람의 개인적 몰락 혹은 문제해결로 서사는 갑자기 중단된다. 앞에서는 마치 중요하게 펼칠 듯한 사건들도 그냥 별 것 없이 끝나버린다. 작가가 이토록 엄청난 다작을 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이러한 특성도 한몫했을 것으로 보인다.

그래서 정비석의 연애 · 세태소설은 즐겁고 편안한 소설이다. 수용자에게 당시 사회적 규범과 보수적 윤리를 넘어서서 돈 · 권력 · 성에 대한 욕구 · 욕망을 적극적으로 드러내는 인간들, 욕망과 힘의 논리에 따라 거침없이 질주하며 충돌하고 거래하는 인간들을 보여주는 쾌감을 주는 한편, 이를 타자화함으로써 윤리적 불안감으로부터 도망치는 편안함을 동시에 제공한다. 또한 오로지 빠른 속도로 앞만 향해 달려가면서, 묵직한 성찰이나 사유, 논리성을 상큼하게 날려버리고 경쾌하게 질주하는 즐거움을 안겨주었을 것이다.

이러한 특성은 정비석의 것인 동시에, 그를 지속적으로 인기를 유지해준 그 시대의 정비석 소설 수용자들이 지니고 있었던 것이기도 했다고 보인다. 이런 소설들을 꾸준하게 소비해주는 수용자들이 존재했다는 점이 이를 뒷받침한다. 특히 정비석은, 김내성이나 박계주와 비교해 보더라도 작품의 수

www.kci.go.kr

로 보아 가장 강력한 대중성을 지닌 작가일 뿐 아니라, 욕망을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그에 따라 행동하는 새로운 인간과 세계를 가장 먼저 포착하고 형상화함으로써 이 시대의 새로운 경향을 이끌었던 작가였다. 이 경향은 정비석에서 시작하여 점차 두 작가에게까지 확산되는데, 늘 논리와 윤리를 중시했던 김내성도 유작『실락원의 별』(1956)에 이르러는 주인공이 욕망에 따라 처자를 버리고 불륜의 도피행각을 벌이는 이야기를 다루고[13], 절제와 희생을 중요하게 다루어온 박계주도 1950년대 중반에는 이른바 '아프레한' 인물들이 작품의 중심을 차지하게 된다. 당대 수용자 대중들의 선택이 이러한 경향을 이끌고 있었고, 그 선두에 정비석이 위치해 있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정비석 연애・세태소설의 주요한 수용자는 일간지의 독자층이었고 그 시대 여론의 향배를 결정짓는 대중들이었다. 정비석 연애・세태소설의 경향과 특성을, 작가적 색깔이 매우 다른 김내성, 박계주 등 다른 인기 작가들까지 수용하고 자기 방식으로 소화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정비석 소설이 대도시 교육받은 남성 수용자들의 새로운 관심사와 취향을 가장 빠르게 포착하고 개척하며 앞서나가고 있었음을 말해주는 것이다.

3-4. 정비석 연애・세태소설의 근대성, 그리고 민주주의

정비석의 연애・세태소설이 보여준, 인간과 세상에 대한 이러한 관점과 태도, 형상화 양상은, 본격예술의 가치기준에 비추어 보자면 충분히 결함으로 인식될 수 있다. 사건 전개와 구성의 비일관성과 균열, 충분한 입체성을 결여한 인물 형상화, 여러 작품에서 나타나는 심각한 자기복제, 사유와 성찰의 결여 등에서 그러하다. 하지만 결여로 인식되는 이들 지점들이야말로 대중예술의 본질적 속성과 관련 있는 것이다. 인간과 세상에 대한 본질적 질문을 던지고 답함으로써 새롭고 창의적인 형상화 방식을 개척하는 본격예술과 달리, 대중예술의 향유는 인간이면 누구나 지니고 있는 기초적인 욕

13) 이영미,「추리와 연애, 과학과 윤리-장편소설로 본 김내성의 작품세계 ,『대중서사연구』21호, 대중서사학회, 2009.6, 28-33쪽.
이선미,「연애소설과 젠더 질서 재구축의 논리 ,『대중서사연구』22호, 대중서사학회, 2009.12, 187-189쪽.

구를 중심으로 살아가는 대중들의 경험과 관심사, 취향, 세계전유방식을 익숙한 형상화 관습으로 주조하여 즐기는 일종의 적극적 휴식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정비석의 연애·세태소설이 지닌 의미와 위상은, 대중예술의 본질적 특성을 결함으로 지적하는 평가를 넘어서서, 바로 그 본질적 특성으로 비롯된 성취와 한계를 동시에 인정하는 것, 즉 대중예술이 지니는 본원적 보수성과 함께 지니고 있는 해체와 전복의 성격에 주목하는 것이 타당해 보인다.

다시 말해 정비석의 연애·세태소설이 보여준 새로운 인간관과 세계전유방식은, 본격예술을 포함한 동시대의 어떤 작품도 성취하지 못한 근대 자본주의 사회와 인간의 적나라한 반영이다. 이들 작품은, 인간이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기초적 욕구·욕망으로 움직이는 개별적인 존재라는 점, 이 세계가 욕망을 향해 질주하는 인간들의 힘이 부딪쳐 경쟁하고 싸우고 거래하는 곳이라는 점, 특히 인격·윤리와 가장 밀착해 있는 성, 연애, 결혼 등도 돈이나 권력처럼 힘·능력으로 환산되어 거래되는 세상이라는 점, 성찰과 사유를 제거하고 욕망에 몸을 실은 채 실용적이고 속도감 있게 움직이는 세상이 도래했다는 점을 매우 명확하게 드러내고 있는 것이다. 어찌 보면 이런 인간과 세상의 모습은, 형상화와 사유에서의 자기완결성을 목표로 하는 본격문학에서는, 1950년대에 아직 고민하고 머뭇거리고 있던 지점들일 수 있다. 그러나 대중소설들은 이른바 결여와 틈이라 지적받는 측면이 오히려 기존의 경향을 빠르게 해체하고 새로운 경향으로 나아갈 수 있는 자유로움의 숨구멍으로 작용할 수 있으며, 정비석은 이를 통해 1950년대의 인간과 사회 속에서 이미 현실화되고 있던 근대성의 양상을 매우 빠르게 작품으로 형상화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럼으로써 해방과 전쟁을 통해 서양식 근대성을 직수입하여 소화하고 있었던 1950년대의 시대정신의 일단을 가장 빠르고 적확하게 포착한 작품들이 될 수 있었던 것이다.

욕망을 지니고 과감히 드러내며 관철하려 하는 개인으로서의 인간을 인정하는 근대적 인간관은 어찌 보면 결과적으로 최초의 시민혁명으로 나아가고 있었던 1950년대의 한국사회가 반드시 체득해야 하는 근대성이기도 했다. 그렇게 봤을 때 정비석의 연애·세태소설이, 이 시기를 마지막으로

www.kci.go.kr

전성기를 끝낸다는 점은 어찌 보면 징후적으로 읽힌다. 이는 이들 작품의 근대적 인식과 태도가, 당시 한국사회의 근대적 발전이란 측면에서 비추어 볼 때 일정한 한계를 지녔음을 짐작하게 해주는 것일 수 있다.

범박하게 말해, 20세기 후반 한국현대사회가 실현해야 했던 근대화의 두 가지 과제는 산업화와 민주화이며, 1960년 4・19와 5・16을 계기로 이를 향한 변화가 발빠르게 이루어졌다고 할 수 있다. 그런 점에서 발전주의・성장주의와 민주주의는 20세기 한국사회를 움직인 가장 중요한 두 개의 가치일 수 있다.[14] 정비석의 연애・세태소설이 그려낸, 욕망을 과감히 드러내는 개인으로서의 인간은, 이 두 가지 가치를 이루는 매우 중요한 전제이다. 우선 여러 관념적 가치로부터 독립하여 자신의 욕망과 이득을 위해 움직이는 자유로운 개인이란 민주주의의 전제이고, 물욕・성욕의 성취를 위해 빠른 속도로 질주하는 정비석의 인물과 소설들은 발전주의의 가치를 그대로 보여주고 있기도 하다. 무엇보다 어디에도 구애받지 않고 맘대로 실컷 먹고 소유하고 즐기고 존중받으며(속된 표현으로 말하자면 '폼 잡으며') 살고 싶다는 정비석 연애・세태소설이 보여주는 세계전유방식이야말로, 잘 먹고 즐기며 살기 위한 경제적 토대로서의 산업화의 요구, 모든 사람이 남한테 무시당하거나 남 앞에 지레 움츠러들지 않고 자신을 드러내며 살아야 한다는 민주화의 요구로 나아갈 수밖에 없다. 세상의 모든 것, 심지어 사랑과 성조차 돈으로 환산되고, 명분과 관념적 가치가 아니라 힘과 힘이 부딪쳐 겨루고 거래하는 곳이라는 인식 역시, 근대성의 경제적 토대인 자본주의의 특징과 정확하게 조응한다. 이것이야말로 1950년대 도시 교육받은 대중들이 관심을 갖게 된 새롭고 참신한 인식과 태도였고, 정비석의 작품들이 최고의 인기를 모을 수 있었던 이유였을 것이다.

그러나 정비석의 연애・세태소설에는 민주주의의 또 다른 태도가 완전히

14) 일반적으로 민주주의의 가치는 4・19를 중심으로, 발전주의의 가치는 5・16을 중심으로 설명되지만 1년 간격으로 일어난 두 사건이 한편으로 대립적이면서도 다른 한편으로 계승적이었다는 이상록의 연구는 흥미롭다. 즉 4・19 직후 혁명의 주체들로부터 에 바로 '빈곤으로부터 자유로운 조국'을 만들고 싶은 염원이 드러났음을 분석하고 있다. 이상록, 「경제제일주의의 사회적 구성과 '생산적 주체' 만들기 ,『역사문제연구』 25호, 역사문제연구소, 2011. 4, 115-155쪽.

결여되어 있다. 그것은 평등, 인권 등에 대한 존중의 태도이다. 역사적으로 정치적 민주주의는 경제체제로서의 자본주의를 토대로 하고 있지만, 자본주의 시장원리와 달리 1인1표제라는 평등의 원리로 유지된다. 오로지 시장의 논리만 관철되는 주주총회가 1인1표제가 아닌 1주1표제(一株一票制)로 운영되는 것과 비교하면 그 차이는 매우 뚜렷하다. 민주주의는 인간 모두가 태어날 때부터 인권을 지니고 있는 평등한 존재임을 인정하며, 인간이 각자 자유로이 욕망을 드러내고 이득을 추구하면서도 이들의 욕망이 충돌할 때에 서로의 인권을 해치지 않는 선에서 조율하고 배려하는 태도를 중시한다. 1인1표제는, 재산・권력・나이・출신・학력・성의 차이와 무관하게 인간이 평등하게 대접받는 것이 당연하며, 각 개인의 인권이 똑같이 존중되는 최소한의 정의가 지켜져야만, 인간 모두 자유로운 개인으로 자신의 노동력의 주인이 되는 자본주의사회가 유지될 수 있다는 믿음과 통해 있다. 이러한 인권과 평등 등의 민주주의적 가치는 것은 정치적 주권을 가진 민초들의 힘으로 실현되고 유지되는 것이다. 그러나 정비석의 작품에는, 바로 이 평등과 인권에 대한 존중, 평등한 개인으로서 남을 존중하며 욕망의 충돌을 조율하며 살아가는 배려, 이렇게 욕망과 힘이 충돌하는 개인들이 함께 공존하는 방식에 대한 고민 등이 결여되어 있다. 인물들은 오로지 소유욕과 정복욕에만 몸을 싣고 달려 나가며, 돈과 권력을 지닌 사람은 매춘, 겁탈, 협박, 탈취에 골몰한다. 심지어 돈과 권력이 없는 사람일지라도 이런 처세에 빨리 적응하면 매우 지혜롭게 이득을 취하며 살아남는다. 그것이 세상의 이치라고 작품들은 말하고 있는 것이다.

욕망과 힘의 충돌로 인한 파국을 막고 공공의 이익을 위해 움직이는 인물들이 등장하지 않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제1기에 나타났던 윤리적 인물들은 이후 점점 존재감이 상실되어간다. 대신, 작가의 사회적 발언이 강해지고 『자유부인』 등 작품에 대한 윤리성 시비가 격해지는 제3기에는 문제해결능력을 기대해 볼 만한 새로운 종류의 인물이 등장하는데, 『민주어족』의 박재하, 『낭만열차』의 김창헌과 원설영, 『슬픈 목가』의 강병철과 이선옥 등이 이러한 인물이다. 이들은 모두, 기술을 지님으로써 물질 생산에 능력을 지니고 있는 남자 혹은 자기희생과 민중계몽이 결합된 브나로드의 길을 걷

www.kci.go.kr

는 남자, 그리고 여러 어려움을 참아내며 이 남자들을 보필하는 여자로 요약된다. 즉 결국 생산의 능력과 성실・희생・계몽의 태도로 요약될 만한 특성을 지닌 사람들인 것이다. 그런 점에서 정비석 소설들의 이상적 인물은 민주주의가 지닌 평등과 인권 존중의 태도, 민초의 힘을 통한 역사발전 등에 대한 믿음 등과는 매우 다른 것으로, 오히려 식민지시대 후반기에 성립된 현실수리의 실용주의, 계몽과 희생의 태도, 그리고 보수적 상하질서와 남녀차별적 질서에 대한 기꺼운 동의의 태도를 보여준다.

정비석의 연애・세태소설이 1960년대 이후 힘을 잃어간 것은 이와 무관하지 않아 보인다. 1950년대까지 기존의 윤리에 구애받지 않고 욕망을 적극적으로 드러내며 힘겨루기와 거래를 하는 인간의 발견이란, 미국의 영향으로 근대적이고 자본주의적 감각을 갑자기 익히기 시작한 1950년대까지는 여전히 신선한 것, 상승하는 것, 도시 대중들의 관심의 초점이었을 수 있다. 비록 이것이 제1공화국 시대의 비리나 무질서 등과 무관하지 않다 하더라도, 일제 말과 해방의 경험, 전쟁의 경험을 통해 윤리와 명분이 힘을 잃는 과정을 겪으며 새로운 민주주의와 산업화된 자본주의의 질서를 구축하고 싶었던 이 시대에, 정비석의 소설의 이러한 측면은 기존 윤리로 보자면 다소 불건전하고 경박해 보이지만 신선한 현실적 에너지가 충만한 것으로 받아들여졌을 것이다. 그러나 4・19와 5・16을 경유하며 열린 1960년대의 시대에는 이것이 더 이상 참신한 것이 아니었다. 학생들은 기존의 질서를 무너뜨리며 민주주의 성취의 새로운 경험을 했고, 제3공화국 정권의 수장 박정희는 임시정부의 대통령, 미국 박사, 양녕대군 후손 같은 귀족주의적 후광이 전혀 없이 무력으로 정권을 잡은 후 부패, 무능, 가난을 뿌리 뽑겠다는 실용주의적인 태도로 국가 주도의 산업화를 밀어붙였기 때문이다. 말하자면 정비석 작품들이 품고 있었던 발전주의와 민주주의의 몇몇 태도들은, 1960년대 초를 경유하면서 당연한 것이 되어버렸다. 특히 박정희 정권은, 정비석 소설이 자극해주었던 잘 먹고 잘 살고 싶다는 기초적인 욕구・욕망의 실현을 가장 중요한 가치로 두고, 대신 이러한 발전주의・성장주의・개인주의의 만연에 대한 윤리적 불안감에 사로잡혀 있던 국민들을 퇴폐・향락・비리척결의 단호한 칼질과 윤리적 계몽으로 안심시켰다. 발전주의, 실

www.kci.go.kr

용주의, 성실, 절제, 헌신, 계몽 등의 태도는 바로 정비석 연애・세태소설이 지닌 가치였고, 그것이 1960년대에는 지배이데올로기가 된 것이다. 앞서 정비석 작품이 보여준 세계전유방식이 식민지 후반기의 그것과 상통하고 있음을 지적한 바 있는데, 드디어 식민지 후반기에 청년기를 보낸 세대들이 1960년대에 중년이 되어 집권에 성공하면서 이러한 세계전유방식을 지배이데올로기로 만들 수 있게 된 것이다.

당시의 국민들이 이 지배이데올로기에 어느 정도 동의했기 때문에 박정희는 정권을 유지할 수 있었고, 그 지배이데올로기는 적극적 선전과 교육, 통제를 통해 국민들에게 내면화되었다. 그러나 다른 한편, 이것이 지배이데올로기가 되면서 더 이상 청년들의 가슴을 두근거리게 만드는 것이 되지는 못했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4・19에서 집결되고 분출된 청년들의 자유주의와 민주주의의 가치들은, 집권한 중년들의 이데올로기와 다소 다른 길로 발전할 수밖에 없었다.[15] 어느 시대이건 대중적인 연애・세태소설은 관의 계몽과 교육의 틀 안에서 갇히지만은 않는다. 체제순응적이고 보수적인 한편, 일탈적이고 전복적이라는 양면성을 동시에 갖고 있는 것이 대중예술인데, 그 중에서도 청춘남녀의 연애를 다루고 젊은이들이 즐겨보게 되는 연애 소재의 작품들은 더 더욱 집권자 세대의 사고방식과 태도를 그대로 받아들이기 힘들 수밖에 없다. 1960년대 연애소설이 정비석의 1950년대적인 세계로부터 이탈하는 것은 어찌 보면 필연이다. 1960년대의 연애소설들이 전혀 다른 작가와 작품 경향을 보여줌으로써, 정비석의 연애・세태소설의 시대는 끝나게 되는 것이다.

15) 김건우는 박정희 정권이 성장주의 정책을 본격화한 1964년부터 지식인들의 담론이 권력참여와 저항으로 양분되고, 1960년대 본격문학의 자유주의 역시 한편으로 1950년대 지식담론으로 자양분을 제공받은 한편 정권에 저항하면서 성장했음을 지적한다. 김건우, 「1964년의 담론지형」, 『대중서사연구』 22호, 대중서사학회, 2009.12, 71-90쪽 참조.

4. 맺음말

여태까지 거칠게나마 정비석의 장편연애·세태소설을 개괄적으로 살펴봄으로써, 1940, 50년대의 세상을 살펴보았다. 서론에서도 밝힌 바 있듯이, 이 글의 중요한 목표는 정비석 소설을 통해 당대 세상을 살펴보는 것이다. 특히 1950년대를 살아간 도시의 대중들이 어떤 생각을 지니고 살아가고 있었는지, 그 시대를 끝낸 1960년 혁명과 1961년 군사정변을 통해 대중들은 또 어떻게 변화해가는지를 살펴보고자 한 것이다.

춤바람과 아프레걸 바람을 단순히 1950년대 판 '된장녀'들의 향락과 비주체적 미국지향성으로만 단순히 볼 수 없듯이, 또한 이 바람을 자유의 신장과 개인의 발견이라는 점에서 그저 민주주의의 진일보라고만 단순화할 수 없는 일이다. 마찬가지로 이승만 정권에 대한 지식인들의 저항과 비판이 거세어진 1950년대 말과 이후 혁명과 군사정변으로 이어지는 정치적 변화 속에서 1950년대의 이 바람들이 다소 잦아들고 근면과 윤리 등의 가치가 재정착하는 것을, 그저 보수적 윤리로의 회귀로, 혹은 향락과 퇴폐라는 구악(舊惡)의 철폐로 단순화하는 것 역시 문제가 있다. 늘 그러하듯, 역사의 진보는 늘 복잡하고 다기한 양상으로 이루어졌고 이 시기의 변화 역시 그러하다는 것을, 1950년대 화려한 바람기를 한껏 온 몸에 지니고 이끌어온 정비석의 작품들은 잘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www.kci.go.kr

참고문헌

1. 기본자료
(본문에서 밝혔으므로 생략함.)

2. 논문과 단행본
강진호, 「전후 세태와 소설의 존재방식-정비석의 「자유부인」을 중심으로」, 『현대문학이론연구』 13호, 현대문학이론학회, 2000, 5-23쪽.
강찬모, 「정비석 소설 연구-부인명 소설에 나타난 여주인공의 성의 자각 과정 연구」, 『한국문학 이론과 비평』 35호, 한국문학이론과비평학회, 2007, 263-279쪽.
권보드래 외, 『아프레걸 사상계를 읽다』, 동국대출판부, 2009.
김건우, 「1964년의 담론지형」, 『대중서사연구』 22호, 대중서사학회, 2009.12, 71-90쪽.
김일영, 「정비석의 신문소설 「자유부인」에 나타난 풍속의 양상」, 『인문과학연구』 4호, 대구가톨릭대 인문과학연구소, 2003, 35-50쪽.
김은하, 「전후 국가근대화와 위험한 미망인의 문화정치학」, 『한국문학이론과 비평』 49호, 한국문학이론과비평학회, 2010, 211-229쪽.
김지연, 「정비석 소설 「자유부인」의 인물 연구」, 동아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1.
김지영, 「정비석 초기 연애소설 연구」, 부산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0.
안미영, 「정비석 대중소설에 나타난 '윤리' 고찰-『청춘의 윤리』, 『애정무한』, 『민주어족』, 『에덴은 아직 멀다』를 중심으로」, 『개신어문연구』 21호, 개신어문학회, 2004, 429-457쪽.
우찬제·이광호 편, 『4·19와 모더니티』, 문학과지성사, 2010.
이상록, 「경제제일주의의 사회적 구성과 '생산적 주체' 만들기」, 『역사문제연구』 25호, 역사문제연구소, 2011.4, 115-155쪽.
이선미, 「연애소설과 젠더 질서 재구축의 논리」, 『대중서사연구』 22호, 대중서사학회, 2009.12, 175-210쪽.
이시은, 「전후 국가재건 윤리와 자유의 문제-정비석의 「자유부인」을 중심으로」, 『현대문학의 연구』 26호, 한국문학연구학회, 2005, 139-165쪽.
이영미, 「추리와 연애, 과학과 윤리-장편소설로 본 김내성의 작품세계」, 『대중서사연구』 21호, 대중서사학회, 2009.6, 7-50쪽.
이원경, 「1930년대 중·후반 소설의 가족과 섹슈얼리티 형상화에 관한 연구」, 국민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8.
최미진, 「한국전쟁기 정비석의 "여성전선" 연구」, 『현대문학이론학회』 32호, 현대문학이론학회, 2007, 305-330쪽.

www.kci.go.kr

Abstract

World perception in Cheong, Bi-seok's full-length novels and those of manners and their historical meanings

Lee, Young-Mee (Sungkonghoe University)

This paper is to look into the works of Novelist Cheong, Bi-seok and their historical meanings, focusing on his full-length and romance novels. Full-length romance novels and those of manners published in the 1940s and 50s when Cheong was in his prime and was working relentlessly make up the core of his works. He wrote profusely during these periods, for example, releasing 28 separate volumes, most of them were serial stories in the newspapers. That is, his full-length romance novels and those of manners enjoyed enormous successes among newspaper readers in the 1950s and were estimated the most popular ones. They represented interests, world perception and attitudes of middle class middle aged men who lived in the cities during the 1950s as well as the world of the novelist's works.

Cheong, Bi-seok's full-length novels could be divided into five periods and they reveal explicitly more and more libido and greed and the number of characters pursuing their desires blindly grows bigger as time goes by. These works assume that desires for money, power and sex are the most important human nature no matter what one's integrity is, and show plainly and subtlely that this world is a place where human beings who run for their desires fight and deal force with force. These novels clearly announce the arrival of the world which is being carried away by desires and moves rapidly and practically, getting rid of self-examination and thinking. Such unprecedented view on human beings and world perception catch precisely modern capitalistic society and human beings which is not achieved by any other novel or novelist.

However, these works acknowledge personal freedom which is the basic premise of modernity and democracy but ignores equality and human rights completely. In this regard, his works lost their appeal and declined after the April 19th revolution in 1960 when the political awareness was hightened by the new generation.

(Keywords : Cheong, Bi-seok, 1950s, Desires, Newspaper readers, Democracy, Modern capitalistic society)

학술대회 발표일 : 2011년 10월 22일 대중서사학회 정기학술대회 기획발표
투고일 : 2011년 10월 29일 정식 투고
심사일 : 2011년 11월 5~23일 심사
수정보완일 : 2011년 12월 3일 수정제출
게재확정일 : 2011년 12월 10일 게재확정

www.kci.go.kr